

# 한국어 직시적 이동사건의 의미에 대한 말뭉치 연구\*

이 정 화

(한국디지털대학교)

## <Abstract>

**Lee Jeong-Hwa. 2009. A Corpus-based Semantic Study of Deictic Motion Events in Korean.** *Korean Semantics*, 29. This paper is a corpus-based semantic study of deictic motion events in Korean from the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 Deictic motion verbs have exhibited various grammaticalization patterns across languages. Two Korean deictic motion verbs 'kata/ota' are used to describe aspectual as well as directional concepts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emantic distribution of the serial verb constructions is reflected in their actual uses. Based on corpus data, Korean reveals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age distributions of 'kata/ota', despite the similarity in their semantic distributions. The corpus data also indicates the difference in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undergone semantic development. Such difference in the usage distributions reflects the shifts in the conceptual organization that take place alongside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핵심어: 이동사건(motion event), 복합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 직시이동(deictic motion), 비직시적 상적 문법화(non-deictic aspectual grammaticalization), 의미분포(semantic distribution), 사용분포(usage distribution), 사례빈도(token frequency), 유형 빈도(type frequency), 고착화(entrenchment), 공간영역(spatial domain), 지각영역(perceptual domain),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

\* 이 논문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6-332-A00138)

## 1. 서론

이동사건(motion event)은 20세기에 들어와 인지과학과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 아동발달,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Rosch 1975, Saeed. 1997, Ungerer & Schmid 1996). 인지과학에서는 이동 동사의 공간적 개념 실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인류학에서는 문화 간 공간 이동 개념에 대한 변이를 분석하였다. 공간 이동에 대한 인류학 연구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서로 연관성이 부족하다. 실용적 단계에서는 이동 개념에 대한 체계적 조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공간 이동 개념과 직시의 기술체계가 사실상 문화 간, 언어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 차이가 개별 인지 경향에 반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hoi & Bowerman 1991, Slobin 1996, Talmy 2000).

직시(deixis)는 발화가 수행되는 동안 발화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 발화 장소와 발화 시간에 대한 맥락이나 상황 정보를 필요로 하는 언어를 말한다 (Fillmore 1997). 직시(deixis)도 이동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언어현상이다. 모든 언어는 다양한 직시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며 문법화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 시제,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 그리고 이동 동사인 come과 go가 대표적인 영어의 직시 표현에 해당된다. 이 직시적 표현은 “의사소통 행위의 측면”(Fillmore 1975)이나 언어외적 맥락 요소 혹은 “발화 사건의 맥락 자질”(Levinson 1983)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직시 개념은 맥락 내에서의 언어 사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의미론과 화용론의 인터페이스(interface)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인지 언어학 관점에서 현대 언어의 직시와 이동사건 개념을 결합한 직시적 이동 사건(deictic motion event)을 다룬다. 특히, 한국어의 ‘가다/오다’ 이동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의 비직시적 상적 문법화(non-deictic aspectual grammaticalization)를 탐구하기 위해 용법-토대적 접근방식(usage-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말뭉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한다. 여기서 복합동사란 최현배(1971)를 따라 의미상

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낱말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이것은 Lyons(1968)의 단어의 내적 구조를 다루는 형태론적 차원의 기술과도 관련된다. 직시적 이동 동사는 여러 언어에서 다양한 문법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어도 그 예외가 아니다. 사실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오다’는 복합동사구문에서 다의적으로 원형적인 공간 방향 개념 뿐만 아니라 지속상(durative)이나 기동상(inchoative)과 같은 상적(aspectual) 개념을 기술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오다’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동사구문의 의미 분포(semantic distribution)와 사용 분포(usage distribution)의 차이를 실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말뭉치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된 ‘가다/오다’의 실제 사용분포가 언어학자의 내성적 통찰에 기초한 의미 분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가정하고,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공간 의미와 상적 의미의 사례 빈도(token frequency)와 유형빈도(type frequency)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가다/오다’ 이동 동사의 상적 문법화가 서로 다른 정도로 관습화되고 고착화(entrenchment)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의미 분포와 사용 분포의 불일치는 문법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화자들의 개념 구조가 변화된 것이라고 이 논문은 주장한다. 이 논문의 이 주장은 Newman과 Rice(2004)와 일치하는데, 그들은 빈도자료가 문법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문법화가 진행되는 정도와 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어의 공간이동 및 상적 개념 구조가 관습화된 문법적,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가다/오다’는 문법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이동 동사 사이에 나타나는 의미 분포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어떤 의미적 요인이 각 동사의 상적 문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사용 분포와 두 이동 동사에 대한 화자의 개념화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타언어 이동 동사의 문법화 연구

*come*과 *go* 이동 동사에 대한 문법화는 많은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Bybee, Perkins과 Pagliuca(1994)는 많은 언어에서 미래 표지가 이동 동사나 이동 동사가 포함된 구문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였다. Emanatian(1992: 13)은 차가어의 직시적 이동 동사가 비공간 이동(non-spatial motion)을 표현하는 소위 전망적 상표지(prospective aspectual markers)로 발전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법화 과정에서 은유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Emanatian은 또한 차가어의 상 개념이 ‘come’ 동사와 ‘go’ 동사 사이에 의미적, 분포적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che* ‘come’은 상적 의미가 짝트는 단계에 있는 반면에, *-ndek* ‘go’는 상적 의미로 문법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Henie와 그의 동료들(1993)은 *come*에서 나온 수많은 기능을 목표(target) 기능이라고 명명하고, 21개의 기능을 나열하였다. 여기에는 전망적/미래 표지뿐만 아니라 과거 표지와 결과형 표지, 진행형 표지 등도 포함된다. 한편 *go*에 대해서는 22개의 기능을 나열하였으며, 여기에는 향격 표지(allative marker), 목적 표지, 지속 표지 등이 포함된다고 기술한다. Lichtenberg(1991)은 오세아니아어에서 방향적 이동 동사와 연관된 비공간적 용법, 예를 들어, 지속 표지와 기동 표지(inchoative marker)로의 문법화를 다루었다. 그는 비슷한 기능이 공시적으로 다른 언어 형태에 의해 표시되면, 각 형태의 의미변화에 관련된 동기화 요인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의미의 차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Hooper(2002)는 폴리네시아 언어 중의 하나인 타켈라우어에서 두 개의 방향 불변화사(directional particles) *mai*와 *atu*의 의미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구어 말뭉치를 양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한 바 있다. 이 두 불변화사는 공간 직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각적 사건에 대한 직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한 사건의 지속적 혹은 기동적 상황을 나타내는 상적 용법으로 발전되었다. Hooper 연구의 흥미로운 발견은 공간 직시 표

현이 의미적으로 기본 혹은 원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어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법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자료에서 발화 직시와 사회적 직시 용법이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2.2. 한국어 이동 동사의 연구

한국어와 영어의 이동 동사와 공간 개념 실현에 대한 공시적 분석으로서 Choi와 Bowerman(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동 사건이 어휘화 양상을 ‘자발적 이동’과 ‘사역적 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직시가 ‘가다/오다’와 come/go 이동 사건의 중요한 의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아동이 이동 동사 사건을 습득할 때, 언어 특정적(language-specific) 의미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성출(2000)은 Talmy(1985)를 바탕으로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를 논의하였다. 그는 동작에 ‘방법’, ‘경로’, ‘진경’이 결합하는 양상에 따라 한국어 이동사건의 형태적 패턴을 연구하였다.

한국어 ‘가다/오다’의 의미 변화는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Sohn(1994: 284)은 ‘가다/오다’가 복합동사 구문에서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한 사건의 “지속상”(durative aspect)을 나타낸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이 직시 이동 동사의 상적 의미는 이 동사가 의미적으로 본동사에 의존하고 있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적 관점”(Lee 1976; Sohn 1976)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서법 조동사로 분류된다.

## 2.3. 한국어 이동 동사의 문법화 연구

Rhee(1996)는 한국어 ‘가다/오다’가 광범위한 의미변화를 거치는데 바로 어휘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은유적 의미로 발전되며, 나아가 문법적인 상의 의미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복합동사 구문의 의미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은유가 ‘가다/오다’의 문법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주장의 근거로 문어 텍스트에서 수집한 빈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료의 크기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결정적인 주장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국어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로 김영태(1998)는 보조용언의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문법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양태 보조용언 ‘가다/오다’는 화자의 “관점의 이입”되고 “진행상”을 실현한다고 주장한다(김영태 1998: 12). 하지만 그는 보조용언 ‘가다/오다’의 상적 의미를 지속상(continuative)과 기동상(inchoative)으로 세분화하지는 않았다.

손세모들(1994)은 중세국어에서 보조용언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용언의 구문론적 조건, 형태 그리고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의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의 주장은 본 논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정리한다. 첫째, 구문론적 환경이 ‘V1+어+V2’로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조용언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V1+어+V2’의 구조에서 V2가 본래의 어휘 의미로 사용되는 않는 경우를 말하며, 셋째,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은 ‘있다’, ‘가다’, ‘버리다’, ‘지다’, ‘보다’의 다섯 가지 형태로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에 비해 수가 매우 한정되었으며, 그 사용 빈도도 매우 낮다고 논의한다. 넷째, 의미 기능면에서 현대 국어의 보조용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다’는 중세 국어에서도 ‘지속’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보조용언의 의미 기능은 본동사의 의미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보조용언 ‘가다’는 본동사의 의미자질의 일부를 유추 확대 또는 추상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손세모들 1994: 213-215).

### 3. 직시적 이동사건의 범위와 내용

#### 3.1. 직시적 이동사건의 범위

이 논문에서 다루는 직시적 이동사건의 범위는 한국어 이동 동사 ‘가다/오다’가 연결접미사 ‘-어’에 의해 연결된 복합동사구문(serial verb construction)으로 한정한다. 이 때 이 이동 동사는 예문 (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복합동사구문의 두 번째 동사 자리 V2에 위치하게 된다.

(2) 인호는 학교에 뛰-어 왔다/갔다.

V1 V2

‘가다/오다’ 이동 동사를 다의적 어휘로 간주하고, 그 의미들을 범주화하고 일관성 있는 의미망(semantic network)을 기술하기 위해서 Langacker(1987, 1991)의 도식모형(schema model)과 원형모형(prototype model)을 도입한다. 도식이란 한 범주의 여러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해 낸 간단하고 추상적인 상위 구성원을 가리키며, 이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해 내는 추상적 과정을 도식화라고 한다.

원형모형은 한 범주의 원형적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보다 더 중심적이라는 범주화 이론이다. 한 범주의 원형은 그 범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중심적이고 전형적인 예를 가리킨다. 또한 원형은 동일한 범주의 덜 원형적인 예들에 대해 범주화의 지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다의적 직시적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공간 이동 의미인 ‘발화시간 혹은 기호화 시간에서 화자의 위치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발화시간 혹은 기호화 시간에서 화자의 위치를 향하는 움직임’은 원형적 의미로서 이들 동사의 의미 범주에서 중심적 의미이다. 이 의미는 어린이에게 가장 먼저 습득되고, 구체적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독립적 맥락에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쉽게 기억되고, 화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인지적 단위로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고착화된다. 게다가 이 원형적 의미는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편재된 영역인 공간영역과 관련된다.

또한 어휘 항목 ‘가다/오다’의 원형 의미에서 확장된 경우도 있다. 공간영역의 원형 의미와 다른 영역의 확장된 의미가 완전히 양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확장된 의미가 원형과 의미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에서 그 범주에 동화되고 속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의미는 단 하나의 도식이나 원형 혹은 이 원형에서 확장된 하나의 의미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동사들의 구체적인 의미들뿐만 아니라 범주화 관계와 그것들 사이의 상호연관성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관련된 정보가 밀접하게 연관되었지만 차별화된 두 모형인 원형모형과 도식모형이 합성된 전체 의미망 속에 통합된다.

### 3.2. 가다와 오다의 의미 분포

한국어의 공간 직시 동사로서 ‘가다/오다’의 의미 분포를 논의하기에 전에, 영어의 *come*과 *go*와 비교하면 의미적으로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오다’와 영어 *come*은 모두 화자가 이동의 목표(goal)로서 직시적 중심(deictic center)이 되어 ‘화자에게 가까운 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한국어 ‘가다’와 영어의 *go*는 그러한 방향적 지향(directional orientation)을 상술하지 않고 ‘화자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이동’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예문 (1)은 대화상에서 한국어 ‘가다/오다’와 영어 *come*과 *go*의 다른 점을 보여준다. 영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어의 ‘오다’ 동사는 청자가 직시적 중심이 되는 것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Shibatani 2003).

- (1) ㄱ. A: 집에 오고 있습니까?  
       B: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가고 있습니다.  
       ㄴ. A: Are you coming home?  
       B: Yes, I'm coming/??going<sup>1)</sup> now.

한국어는 (1ㄱ)의 화자 B가 보여주는 것처럼 화자가 청자가 위치한 장소로 이동할 경우, 직시적 중심은 여전히 화자가 되어 ‘가다’ 동사가 쓰인다. 반면에 영어는 (1ㄴ)의 화자 B가 청자 쪽으로 이동할 경우, 직시적 중심이 화자에서 청자로 이동되어 *go*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ome*을 쓰는 것이다. 이러한 직시적 중심의 관점에서만 보면, 영어는 직시적 중심의 이동이 한국어보다 유연하고 영어가 한국어보다 청자 중심의 언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 대화나 전화상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간다고 할 때, 한국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영어표현은 I'm going now.보다는 I'm coming now.가 선호된다. 이 맥락에서 영어화자는 화자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come*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자의 위치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가는 경우 혹은 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I'm going now.를 쓴다.



한국어 ‘가다/오다’ 동사의 의미 분포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 동사의 용법과 관련되는 영역(domain)에 따라 공간영역, 지각영역, 인지영역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즉, ‘가다/오다’는 의미 분포 면에서 유사하여, 둘 다 Type I의 공간 영역(spatial domain)과 Type II의 비공간적 지각 영역(perceptual domain), Type III의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것은 의미 확장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추상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진다는 문법화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Hopper & Traugott 1993). 그러나 Type II와 Type III가 서로 다른 의미 특성 때문에 지각영역과 인지영역으로 구별되었다 할지라도, Type III가 Type II보다 더 추상적이거나 그 반대 방향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오다’와 ‘가다’는 각각의 영역에서 많은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차이도 또한 보여준다. 의미적으로 연결사 ‘-어’로 연결된 ‘가다’와 ‘오다’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연속적이면서 독립된 사건을 기술할 수 없다. 또한 두 개의 연속된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어’ 대신에 다른 연결사 ‘-고’가 사용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먼저 공간영역에서 ‘가다/오다’는 물리적 사건의 방향을 기술하며, 복합동사구문에 쓰인 첫 번째 동사의 의미에 따라 Type I은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 (3) Type I 공간영역(spatial domain)

- ㄱ. Type I-1 동작방법(manner): 인호는 학교에 뛰어 갔다/왔다.
- ㄴ. Type I-2 물리적 행동(physical action): 인호는 공원에 개를 데려 갔다/왔다.
- ㄷ. Type I-3 이동(locomotion): 인호는 미국에(서) 돌아갔다/왔다.

Type I-1 예문 (3ㄱ)에서 첫 번째 동사 ‘뛰다’, ‘걷다’, ‘날다’ 등은 직시적 동작이 일어나는 방법(manner)을 표현하며, ‘가다’와 ‘오다’는 대조적인 방향을 기술한다. Type I-2에 쓰인 V1 동사는 전형적으로 직시적 동작 전에 발생하는 물리적 행동을 기술한다. 이 범주에는 ‘가져가다’, ‘데려가다’, ‘데려오다’ 등이 포함되며, 이 표현들은 상당히 어휘화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사다’(buy) 혹은 ‘입다’(put on)와 같이, V1이 타동사이고 V2가 자동사

인 ‘가다/오다’와 결합하는 경우, 두 개의 연속적인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 이 두 동사를 연결하는 것은 ‘-어’가 아니라 ‘-고’가 사용된다. 그러므로 (4ㄱ)과 같은 문장은 단지 ‘-고’만이 가능하며, (4ㄴ)처럼 ‘-어’가 쓰인 경우에는, ‘가다/오다’가 아래의 Type III-2에 해당되는 상적 의미만 나타낼 수 있다.

- (4) ㄱ. 인호는 생선을 먹-고/\*-어 왔다.
- ㄴ. 인호는 생선을 먹-어 왔다.

Type I-3은 이동(locomotion) 혹은 동작을 표현하는 ‘돌다’(return), ‘들다’(enter), ‘내리다’(descend) 등이 여기에 속하며, 화자-지향적 방향(speaker-oriented direction)을 기술하기 위해 이 동사가 ‘가다/오다’와 결합한다.

지각 영역 Type II는 동사 ‘가다/오다’가 지각과 연관된 ‘들리다’(be heard) 나 ‘보이다’(be seen) 등과 결합하여 지각 사건을 표현한다.

- (5) Type II 지각영역(perceptual domain)
- 트럼펫 소리가 들려 왔다.

(5)에서 지각대상(percept)인 트럼펫 소리가 지각자(perceiver)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개념화되었으므로 지각자는 전형적으로 화자가 된다. 이러한 지각 동사는 자연적으로 화자중심이 많기 때문에 이 지각 사건은 ‘가다’ 동사 보다는 ‘오다’ 동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Type III 인지영역의 ‘가다/오다’는 조동사로서 상적 기능과 관련된다. 이 유형은 다시 지속상(continuous) Type III-1과 기동상(inchoative) Type III-2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적 기능은 개념적 은유 [시간은 공간](TIME IS SPACE)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어 공간 직시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Lakoff 1987).

- (6) Type III 인지영역(cognitive domain)
- ㄱ. Type III-1 지속상(continuous aspect)
- 인호는 십년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다.

#### ㄴ. Type III-2 기동상(inchoative aspect)

이제부터 추워져 갈 거다/올 거다.

‘가다’와 결합한 경우, 사건은 어떤 시간 참조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반면에 ‘오다’와 결합한 경우, 사건은 그 시간 참조점으로 향하는 것으로 기술되며, 이 시간 참조점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 ‘가다/오다’의 이 유형은 자주 인지적 혹은 개념적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영역보다는 인지영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Rhee(1996)는 Type III-2의 기동상이 Type III-1의 지속상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그 경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이 두 상적 의미의 문법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상적 의미가 모두 추상적이며, 공간적 용법에서 독립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간주한다(Litchenberk 1991).

Type III-2의 ‘가다’는 기동적(inchoative)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와 연관되어, 종종 어떤 것이 정상적 혹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남을 표현한다. ‘가다’가 포함된 (6ㄴ)은 화자가 추운 날씨 대신에 따뜻한 날씨를 선호하며, 그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나쁜 날씨로 간주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Lee, 1999). 이와 반면에, ‘오다’는 그 사건의 중립적 혹은 긍정적 평가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6ㄴ)에서 화자가 추운 날씨를 좋아한다면 ‘가다’ 대신에 ‘오다’를 사용할 것이다. 이 ‘가다/오다’의 비대칭성은 ‘엇-(wrongly)과 ‘어긋-(counter to rules), ‘빗-(obliquely)와 같은 비정상상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오다’와는 결합하지 않고, ‘엇-가다/\*엇-오다’(go wrong)과 ‘어긋-나-가다/\*어긋-나-오다’(go astray)에서처럼 ‘가다’와 쓰인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 4. 말뭉치 연구

### 4.1 활용 말뭉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가다/오다’의 상적 용법에 대한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의미 분포(semantic distribution)와 사용 분포(usage

distribution)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가다’와 ‘오다’ 두 이동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동사의 의미 분포가 한국인 화자의 실제 언어 사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데 본 말뭉치 연구의 의의가 있다. 특히, 3.2절의 ‘가다/오다’의 의미 분포에서 Type I이 의미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원형적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가다/오다’의 공간영역(Type I) 용법이 지각영역(Type II) 혹은 인지영역(Type III)의 용법보다 더 자주 쓰이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연구·교육용 현대 국어 말뭉치』의 일부에서 1990년대 이후의 10개 소설<sup>2)</sup>을 추출하였다.

10개 소설 말뭉치의 크기는 원시말뭉치 10개 소설을 모두 합하여 약 53만 어절에 해당되며, 검색도구 글잡이를 사용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그 소설 목록은 아래와 같다.

(6) 문어 말뭉치를 위한 소설 목록

- ㄱ. 하일지. 1993. 경마장에서 생긴 일
- ㄴ. 구효서. 1995. 낮선 여름
- ㄷ. 홍성원. 1993. 먼동
- ㄹ. 박일문. 1992. 살아남은 자의 슬픔
- ㅁ. 광재구. 1992. 아기참새 짝구
- ㅂ. 김성동. 1993. 연꽃과 진흙
- ㅅ. 김소진. 1993. 열린 사회와 그 적
- ㅇ. 김하기. 1990. 완전한 만남
- ㅈ. 한승원. 1994. 포구
- ㅊ. 안정효. 1993.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

2) 이동 동사가 사용된 복합동사구문은 10개 소설이 포함된 문어말뭉치 뿐만 아니라 구어 자료도 포함하여 자료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직시적 이동사건은 샘플 구어 자료에서 그 용법이 공간영역의 물리적 이동에 한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어 자료가 인지영역의 비직시적 상적 문법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먼저 이 말뭉치에서 ‘가다/오다’를 포함하고 있는 실제 용례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사례 빈도(instance frequency)와 ‘가다/오다’와 함께 쓰인 동사 수를 나타내는 유형 빈도(type frequency)를 조사하였다.

## 4.2. 말뭉치 분석 결과

### 4.2.1. 사례 빈도 분석

3.2절의 의미분포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합동사구문 ‘가다/오다’의 의미 분포는 Type I, Type II, Type III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말뭉치 조사·분석에 따르면 이들 동사의 사용 분포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국어 ‘가다’는 ‘오다’와 비교할 때, 본동사로서 ‘가다’는 더 높은 사례 빈도를 보여 주며, 이는 대부분의 복합동사구문의 사용 분포에 반영되어 있다.

소설 말뭉치에서 본동사로서 ‘가다’는 1691개 용례 수를 보이고, ‘오다’의 용례 수는 854개로 ‘가다’가 ‘오다’보다 대략 2배 정도 더 자주 나타난다<sup>3)</sup>. ‘가다/오다’ 본동사의 사례 빈도 차이는 복합동사구문의 조동사의 사용 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1>에서 ‘가다/오다’ 복합동사구문의 전체 용례 수는 4251개이고, 그 중에서 ‘가다’의 용례 수는 2519개로 전체 사례 빈도의 59%를 차지하여 실제 말뭉치에서 ‘오다’의 용례 수 1732개(41%)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의미유형	가다	오다
I 공간영역	2120(84%)	1465(85%)
I-1	397	150
I-2	387	310
I-3	1336	1005
II 지각영역	23(1%)	145(8%)
III 인지영역	376(15%)	122(7%)
III-1	148	100

3) 홍진주(2007)의 한국어 이동 동사의 빈도 순위에서도 300만 어절 중에서 ‘가다’의 용례 수는 7747개이고, ‘오다’는 6,126개로 ‘가다’가 더 자주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2	228	22
전체	2519(100%)	1732(100%)

<표 1> 복합동사구문의 ‘가다/오다’ 사례 빈도

더구나 Type II의 지각적 영역을 제외하면, ‘가다’가 공간영역과 인지영역에서 모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Type II에서 ‘오다’(8%)가 ‘가다’(1%)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은 지각대상이 지각자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지각자는 자연적으로 화자 중심이 많기 때문이다.

‘오다’가 주로 Type I 공간영역(85%)과 지각영역(8%)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가다’는 Type I 공간영역(84%)과 Type III 인지영역(15%)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Type III 인지영역에서의 사례 빈도의 차이는 복합동사구문 ‘가다/오다’가 조동사 의미로 발달되는 과정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가다’의 더 높은 사례 빈도가 그것의 상적 의미 발전에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 4.2.2. 유형 빈도 분석

유형 빈도는 ‘가다/오다’가 들어있는 복합동사구문에서 첫 번째 동사의 수를 세어 확인한다. 동사의 이형태, 예를 들어, 수동형과 능동형도 따로 수를 확인하였고, 합성동사도 마찬가지이다. <표 2>는 말뭉치에서 각 용법의 ‘가다/오다’의 유형 빈도를 보여주며, 그 동사 목록은 ‘가다/오다’ 동사와 함께 쓰인 동사 중 적어도 10번 이상 쓰인 것을 모은 것이다. 예를 들어, <표 2>의 가장 왼쪽에 있는 Type I-1의 13(397)에서 13은 ‘-어 가다’와 함께 쓰인 동사의 유형 빈도를 나타내고, 괄호 속에 있는 (397)은 사례 빈도를 나타낸다. 즉, 13가지의 다른 동사들이 ‘-어 가다’와 함께 쓰이고, 이들의 총 사례가 397개임을 나타낸다. 그 옆에 있는 7(382)에서는 사례가 10번 이상 쓰인 동사가 7개 있고, 그 사례 빈도가 382개임을 나타낸다. 또한 <표 2>에서는 사례가 10개 이상인 동사를 모두 열거하였는데 ‘V-어 가다’ 아래에 있는 ‘걷다’(123)는 ‘가다’와 동사 ‘걷다’의 결합형인 ‘걸어가다’의 사례 빈도가 123개임을 보여준다.

의미분포		V-어 가다		V-어 오다	
		총유형빈도 (총사례 빈도)	사례가 10개 이상인 유형빈도(사례빈도)	총유형빈도 (총사례 빈도)	사례가 10개 이상인 유형빈도(사례빈도)
공간 영역	I-1	13(397)	7(382)	9(150)	5(132)
			걷다(123) 달리다(101) 날다(57) 끌리다(46) 몰리다(22) 뛰다(20) 기다(13)		달리다(44) 걷다(41) 밀리다(17) 날다(16) 몰리다(14)
			6(218)		4(188)
	I-2	70(387)	6(218)	62(310)	4(188)
			찾다(116) 가지다(36) 데리다(26) 쫓다(20) 빼앗다(10) 실리다(10)		찾다(103) 묻다(45) 가지다(23) 불다(17)
			5(1213)		3(849)
	I-3	35(1336)	5(1213)	34(1005)	3(849)
			들다(631) 내리다(247) 돌다(238) 넘다(68) 나다(29)		들다(507) 돌다(184) 내리다(158)
			1(15)		1(134)
지각 영역	II	6(23)	1(15)	6(145)	1(134)
			떨어지다(15)		들리다(134)
인지 영역	III-1	24(148)	1(106)	30(100)	1(52)
			살다(106)		살다(52)
	III-2	74(228)	3(107)	14(22)	0(0)
			죽다(49) 돌다'die'(46) 되다(12)		

<표 2> 복합동사구문의 '가다/오다' 유형 빈도

<표 2>에서 높은 사례 빈도를 가진 '가다/오다'의 공간영역 용법이 지각영역이나 인지영역에 비해 역시 높은 유형 빈도를 보여준다. 또한 '가다'의 유형

빈도가 III-1 지속상 용법을 제외하면, ‘오다’의 유형 빈도보다 대체적으로 높다.

<표 2>에서 보듯이, ‘가다/오다’ 복합동사구문의 유형빈도는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가다/오다’가 특정한 동사와 결합하여 복합동사구문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자주 쓰이는 ‘가다/오다’의 I-3 용법에서조차 유형빈도는 ‘가다’와 ‘오다’가 각각 35개, 34개로 비교적 적은 수의 다른 동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 용법에서 가장 자주 쓰인 동사는 ‘들다’(enter)로서 그것의 사례 빈도의 비율은 이 용법의 약 50%에 이른다. 즉, ‘가다’의 경우 전체 용례 수 1336개에서 631개이고, ‘오다’의 경우 전체 용례 수 1005개에서 507개로서 그 용법의 각각 절반에 해당된다. ‘가다/오다’의 다른 용법도 낮은 유형 빈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걷다’와 ‘달리다’, ‘찾다’ 등의 소수 동사와 결합하며, 이 동사들이 용법 I-1과 용법 I-2에서 아주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 2>에서 높은 사례 빈도를 가진 ‘가다/오다’의 공간영역 용법이 인지영역 용법에 비해 높은 유형 빈도를 보여주는 것은 ‘가다/오다’가 조동사 용법보다는 일반 동사로 더 자주 쓰이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와 반면에, ‘가다/오다’의 인지적 상 용법 III은 낮은 사례 빈도뿐만 아니라 낮은 유형 빈도를 보여준다. 지속상을 나타내는 용법 III-1은 ‘오다’ 사례의 52%와 ‘가다’ 사례의 72%가 ‘살다’ 동사와만 쓰였다. 기동상을 표시하는 용법 III-2는 ‘가다’(74)가 ‘오다’(14)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유형 빈도를 보여 주지만, ‘죽다’와 ‘들다’(die)라는 두 동사가 전체 용례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표 2>에서 III-1 지속상 용법은 ‘가다’와 ‘오다’의 사례빈도(148 대 100)와 유형빈도(24 대 30)가 비슷하다. 문어말뭉치 뿐만 아니라 구어자료도 포함한 더 큰 말뭉치를 살펴보고 다른 문법화 요소들도 조사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하겠지만, 본 논문의 말뭉치 조사 결과는 잠정적으로 ‘가다/오다’의 지속적 상적 문법화가 거의 같은 단계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III-2 기동상 용법에서 ‘가다’의 유형 빈도(74)는 ‘오다’의 유형 빈도(14)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오다’의 경우 ‘-어 오다’에 함께 쓰이는 사례가 10개 이상인 동사는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가다/오다’의 상적 문법화 과정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동상’으로의 문법화는 ‘가다’가 ‘오다’보다 더 많이 진행되고, 화자들의 개념 구조 속에 더 많이 관습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영역의 용법 II의 유형 빈도는 ‘가다’(6)와 ‘오다’(6)로 아주 낮아서 ‘가다/오다’가 매우 적은 수의 다른 지각동사와만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다’는 ‘들리다’ 동사와 자주 쓰이고 있으며, 이것은 이 지각 용법에서 92% 이상을 차지한다.

### 4.3. 말뭉치 자료 분석결과 논의

이 논문은 개념 구조에 대한 용법-토대 접근방식에 의한 분석결과, 언어 사용 빈도가 언어 형태의 특정한 용법의 관습화 혹은 고착화의 정도 차이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용법의 ‘인지적 현저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Langacker 1987).

복합동사구문 ‘가다/오다’는 인지영역 용법으로 쓰인 사례 빈도가 모두 낮은 반면, 공간 영역 용법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지영역 용법의 유형 빈도 또한 낮아서 소수의 특정한 동사가 그 용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의 ‘가다/오다’의 상적 용법이 공간영역의 용법만큼 높은 수준의 인지적 현저성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동사와 복합동사구문에서 ‘가다/와다’가 빈번하게 쓰이고 있지만, ‘지속상’이나 ‘기동상’을 나타내는 상적 용법으로서 아직 관습화가 덜 되었고 인지적 현저성도 공간적 용법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다’와 ‘오다’는 의미 분포가 매우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다’와 ‘가다’의 사용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차이는 이 동사들이 의미변화를 겪는 정도 차이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사용 분포의 차이가 문법화 과정과 더불어 발생하는 화자의 개념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빈도 자료가 문법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법화 과정이 진행된 정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해 준다는 Newman과 Rice(2004)의 주장과 일치한다.

Bybee(2003)가 주장한 것처럼, 사례빈도와 유형빈도는 ‘가다/오다’의 상적 문법화 과정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 빈도의 증가가 문법화 과정의 필수요소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한 단위나 구문의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기능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높은 사례 빈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말뭉치를 활용한 이 공시적 양적 분석 연구는 한국어 ‘가다/오다’ 복합동사구문의 실제 사용분포 패턴의 특징을 밝혀 주며, 사례 빈도와 유형 빈도가 모두 높은 ‘가다’가 ‘오다’에 비해 상적 용법으로의 문법화가 더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중세 국어에서 ‘가다’는 ‘-어 가다’ 형태에서 ‘지속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이미 쓰였던 반면, ‘오다’는 상적 용법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쓰이지 않았다(손세모들 1994). 이와 같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다’의 상적 의미는 ‘오다’의 상적 의미보다 역사적으로 더 오래 되었고, 그 용법에 대한 고착화 정도나 인지적 현저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다/와다’의 상적 의미가 각각 독립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왔다고 가정하면, 공시적 말뭉치 분석 결과는 ‘가다’는 Type III-1 ‘지속상’과 Type III-2 ‘기동상’을 동시에 발달한 형태로 보여준다. 또한 가다의 ‘기동상’은 ‘지속상’보다 사례 빈도와 유형 빈도가 모두 훨씬 더 높으므로 더 문법화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더 많은 자료와 문법화 요소를 검토하여야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가다’가 ‘지속상’ 용법으로 쓰였다는 손세모들(1994)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지속상’의 문법화가 ‘기동상’보다 더 오래 되고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가다’의 통시적 진술과 관련하여, ‘오다’의 상적 용법은 ‘기동상’보다 주로 ‘지속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오다’의 문법화의 순서를 지속상 용법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에 기동상 용법이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상’ 용법이 ‘기동상’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오다’의 상적 문법화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와 반대로 ‘가다’의 경우에는, ‘지속상’뿐만 아니라 ‘기동상’도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문법화가 ‘오다’보다 더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다/오다’의 특정한 상적 의미를 더 깊이 논의할 수도 있다. ‘오다’는 어떤

사건이 ‘지속상’을 기술하기 위해 더 자주 사용되지만, ‘가다’는 어떤 상황의 점진적 변화를 표현하는 ‘기동상’을 기술하기 위해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 비대칭적 특징은 각 복합동사구문의 내재적 의미 특징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오다’는 직시적 중심이 발화 시간 혹은 참조 시간이고, 어떤 상황이 그 시간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대개 지속상을 표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다’의 경우에는, 직시적 중심이 어떤 상황의 시작점이 되고,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거나 변하게 된다. 그래서 ‘가다’의 경우에는 기동상으로 더 자주 쓰이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어에서 ‘가다’의 이러한 변화는 종종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연관되어, 어떤 무엇이 정상 혹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가다’의 의미적 특징은 죽음을 기술하는 ‘죽다/돌다’ 동사가 이 기동상 의미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가다’의 기동상 용법에 비해 ‘오다’의 기동상 용법은 문법화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며, ‘가다’가 진화해 온 것과 비슷한 화용적 기능에 의해 동기가 부분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여겨진다.

## 5. 결론

이 논문은 한국어의 ‘가다/오다’ 복합동사구문의 의미 분포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사용분포의 차이점도 밝혀주었다.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된 말뭉치 빈도 분석을 통해 언어의 역동적 특징을 포착하여 보여준 것이다. 어휘의 높은 빈도가 개념적 현저성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다/오다’는 의미 분포의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문법화는 서로 다른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문어 말뭉치와 구어 말뭉치 자료를 비교해 보면, 구어 말뭉치의 인지영역에서 ‘가다/오다’가 사용된 용례는 문어 말뭉치의 그것보다 훨씬 적게 나타난다. 구어의 각 복합동사구문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범위 역시 매우 한정되었고, 심지어 공간 영역에서도 ‘가다/오다’와 함께 사용된 동사들이 한정되었다. 문법화가 어떤 어휘 항목의 빈번한 사용에 의해 동기화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의사소통이 대부분 말하는 형

태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문어 자료에서 보여준 수준은 아니더라도, 후속 연구에서 구어에서도 문법화된 용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직시적 이동 동사에 대한 공식적인 미시적 말뭉치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계통적으로 비슷한 혹은 다른 어족에 속하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형학적으로 한국어의 정체성을 밝히고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비슷한 복합동사구문을 가진 일본어의 *kuru* 'come'과 *iku* 'go'를 비교·연구함으로써 이동 동사 의미장(semantic field)에 속하는 어휘들의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언어 간 대조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가 언어 보편성이론 혹은 언어 상대주의이론을 지지하는지를 연구하는 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어와 일본어 사용자의 실제 말뭉치 자료를 통하여 얻은 통계적 결과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동 동사와 상적 의미 문법화 관계에 대한 심리적 실재성을 논의하도록 해 줄 것이다.

이 논문의 시사점은 한국어 화자들이 실제 사용한 말뭉치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이동 동사의 상적 문법화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설명하며, 이동 동사의 의미적 분포 및 다의적 의미는 임의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동사건의 의미적 형상을 지배하는 인지원리와 범주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 사건의 개념구조는 인지적 모델이나 인지영역 등과 같은 다양한 인지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동에 대한 인지가 풍부한 선행적 기초를 두고 있는지, 혹은 인간 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한 일련의 인지 언어학 기대에 부합하는지, 즉 마음이 본연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는지와 사고 작용이 대부분 무의식적인지, 그리고 추상적 개념이 은유적인지 등에 관심을 두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태(1998), 보조용언의 양태 의미. *우리말글* 16호, 1-16.

- 손세모돌(1994), 중세 국어의 보조용언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24호, 175-217.
- 손호민(1976), Semantics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142-150.
- 이기동(1999), 동사 ‘가다’의 의미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제 9차 국제 학술회의.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 21세기 세종계획 연구·교육용 현대 국어말뭉치. <http://www.sejong.or.kr/>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홍진주(2007), 한국어와 영어 이동 동사의 대조 분석: 한국어 ‘v-n 가다/오다’ 형태 합성 동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ybee, J.(2003), Mechanisms of change in grammaticization: The role of frequency. In B. D. Joseph and J.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602-23. Blackwell.
- Bybee, J., Perkins, R. & Pagliuca, W.(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i, Soonja & Melissa Bowerman.(1991), “Learning to express motion events in English and Korean: the influence of language-specific lexicalization patterns.” In: Levin, B. & Pinker, S (eds), *Lexical and Conceptual semantics*. Cambridge, Mass and Oxford, UK. Blackwell.
- Emanatian, M.(1992), Chagga *come* and *go*: metaphor and the development of tense aspect. *Studies in Language*, Vol. 16(1), 1-33.
- Fillmore, C. J.(1975), *Santa Cruz Lectures on Deixi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Fillmore, C. J.(1997), *Lectures on Deixis*. Stanford, California: CSLI Publications.
- Heine, B., T. et al.(1993), *Conceptual Shift: A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in African Languages*. Köln: Institut für Afrikanistik.
- Hooper, R.(2002), Deixis and aspect: The Tokelauan directional particles *mai* and *atu*. *Studies in Language*, Vol. 26(2), 283-313.
- Hopper, P., and E.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 Sung-Chool.(2000), *Typological Patterns of Motion Verbs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Lakoff, G.(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 W.(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 Lee, K. D.(1976), Auxiliary verbs and evaluative viewpoint. *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1(2), 47-69.
- Levinson, S. C.(1983), *Pragmatics*. London. Cambridge.
- Lichtenberk, F.(1991), Semantic change and heterosemy in grammaticalization. *Language*, Vol. 67(3), 475-509.
- Newman, J., and S. Rice.(2004), Patterns of usage for English *sit*, *stand* and *lie*: A cognitively inspired exploration in corpus linguistics. *Cognitive Linguistics*, Vol. 15(3), 351-396.
- Rhee, Seongha.(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 linguistic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Rosch, E.(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23.
- Saeed, J. I.(1997), *Semantics*. Oxford: Blackwell.
- Shibatani, M.(2003), Directional verbs in Japanese. In E. Shay and U. Seibert (eds.), *Motion, Direction and Location in Languages: A Volume Dedicated to Zygmunt Frajzyngier*, pp. 259-286. Amsterdam: John Benjamins.
- Slobin, D. I.(1996), Two ways to travel: verbs of motion in England and Spanish. In M. Shibatani & S.A. Thompson (eds.)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s*, 157-2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hn, H. M.(1994), *Korean*. New York: Routledge.
-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III, 57-1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lmy, L.(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Ungerer, F. & H.-J. Schmid.(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Longman.

서울시 종로구 계동 1021 한국디지털대학교 205호

110-800

전화 번호: 02-6361-1928

전자 우편: engenia@kdu.edu

원고 접수일 : 2009년 7월 7일

원고 수정일 : 2009년 8월 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8월 24일